

LG · 현대 “대형 산업사고 많은 곳”

노동부, 중대 재해 · 산재 사업장 명단 공개 ... 안전조치 위반시 처벌강화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대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4곳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노동부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0곳과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곳 등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24곳의 명단을 10월21일부터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200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 2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상자를 동반한 산업사고를 낸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으로, 사업장명과 소재지, 재해 발생자수 등의 현황이 공개된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LG건설 LG백화점 부천점 증축 및 개·보수공사 현장과 현대중공업, 일신프랜트, 혼우철강 2공장, 경도이엔티, HSD엔진,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아이비하우징, 포스코건설, 세방기업, 명한종합환경, 동성산업, POSCO 포항제철소, STX조선, 천광종합건설, 케이엘 코퍼레이션, 한전기공 등이다.

이일산업과 현대페스(옛 고제), LG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4곳은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포함됐다.

노동부는 “중대 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산재 다발 및 은폐 사업장은 1년마다 각각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0/21>